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주제나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편의 글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여러 책을 읽고 탐구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애들러와 도렌은 이처럼 두 권 이상의 책을 비교하며 읽는 능동적 독서 방식을 통합적 독서라고 불렀다.

애들러와 도렌은 독자의 독서 수준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제1수준은 초급 독서로 책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초적 읽기 단계이며, 제2수준은 점검 독서로 정해진 시간 내에 책을 훑어보거나 목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읽는 단계이다. 제3수준은 한 권의 책을 시간제한 없이 깊게 정독하는 분석적 독서로 저자가 사용한 핵심 단어 의미 파악하기, 저자의 주장과 근거 찾기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 단계이다. 제4수준은 통합적 독서로 여러 책을 읽고 중심 주제를 연관 지어 읽는 단계이다. 이들은 높은 단계의 독서 수준이 이전 단계의 독서 수준을 포함하며, 독서 수준은 이전 수준에 도달해야 다음 수준의 읽기로 넘어갈 수 있는 위계적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애들러와 도렌은 통합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책들을 살펴보고 주제와 관련된 도서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후 통합적 독서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데, 독자는 먼저 탐구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 읽으며 책의 유용성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저자들이 관점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 핵심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공통된 요소를 담아 '중립적 용어'로 재설정한다. 그다음 탐구 주제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저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답을 탐색하고, 저자들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쟁점들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는 쟁점별로 저자들의 해석이 다른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통합적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독자가 중립적 용어로 바꿀 경우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 독서는 다양한 관점을 연결해 저자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초급 독서 수준에 도달해야 점검 독서를 할 수 있다.
② 점검 독서는 책을 훑어보거나 필요 부분을 읽는 단계이다.
③ 점검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주장과 근거를 찾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④ 점검 독서는 분석적 독서와 달리,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을 읽어야 한다.
⑤ 통합적 독서는 분석적 독서와 달리, 두 권 이상의 책을 읽고 비교하는 단계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통합적 독서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앞선 수준과 다른 점이 읽기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시되지 않았다.
② 중립적 용어를 설정할 때 단어의 의미가 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③ 다양한 저자들의 관점을 해석하는 데 주목하여, 능동적 독서의 장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④ 독자가 유용한 부분만 찾아 읽는다는 점에서, 저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⑤ 주제에 대한 저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는 방법만 제시하여 공통된 견해가 나타나는 상황은 논하지 않았다.

3.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독서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탐구 주제로 정한 '성공의 기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통합적 독서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 여러 도서를 살펴보며 탐구할 도서 목록을 작성했다. 책을 읽다 보니, ⓑ 저자들은 '성공'을 '경제적 성취', '사회적 인정', '개인의 만족' 등의 개념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을 ⓒ '삶에서 성취를 이루었다고 인식하는 상태'라고 설정하고,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가?'라는 질문을 만들어 저자들의 견해를 탐색했다. ⓓ 이후 '성공의 기준은 외적 성취인가, 내적 만족인가?', '성공은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쟁점을 정하고, ⓔ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쟁점별로 저자들의 해석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① ⓐ: '성공'과 관련된 도서들을 선정하여 통합적 독서를 준비했겠군.
② ⓑ: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가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됨을 파악했겠군.
③ ⓒ: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중립적 용어로 다시 설정했겠군.
④ ⓓ: 질문에 대해 저자들의 관점이 부딪치는 부분을 찾아 쟁점으로 규정했겠군.
⑤ ⓔ: 쟁점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과 유사한 저자의 해석을 선정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학에서는 구조를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외적 제약으로 ⓐ 바라보는 입장과 인간 행위의 반복이 구조를 형성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기든스는 두 입장이 각각 행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거나, 제도화된 거대 구조의 강제력을 간과하는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지적하며 구조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구조화 이론에서는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매개인 동시에 행위의 결과물이며, 인간은 이를 성찰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며 재생산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규칙은 개인의 발화를 제한하는 외적 제약이지만,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매개이다. 사람들은 기존의 언어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언어 표현을 ⓑ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단순히 기존 구조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 구조를 활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는 점을 의미하며, 기든스는 이러한 개인의 행위를 ㉠ '성찰적 실천'이라고 불렀다. 그는 성찰적 실천에 의해 사회체계가 유지되거나, 변형되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 기든스는 사회체계가 재생산이 되려면 개인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추상적 시스템'은 타인과 직접적 접촉 없이도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적 표상과 전문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상징적 표상이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화폐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전문가 체계는 의료 체계처럼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 지식과 그 운용 체계를 의미한다. 기든스는 물물 교환처럼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던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화폐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시공간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낯선 환경과 타인에 대한 무지에서 ⓒ 생기는 불안과 불확실성은 전문가 체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맺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추상적 시스템은 개인의 행위를 지속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개인의 행위는 사회체계의 재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든스의 입장이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제공되고, 변화의 방향성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구조화 이론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성찰적 실천을 통해 구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사회체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임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과학의 발달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제도로 인해 자연에 대한 통제와 생산성 증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상품 생산은 기후 위기나 방사능 오염과 같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도 초래하였다.

울리히 벡은 산업 사회가 초래한 위험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산업화의 부산물로, 자연재해와 달리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과학으로도 완벽한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와 정치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벡은 이처럼 사회 운영의 중심축이 '부의 생산'에서 '위험의 관리'로 이동한 상태, 즉 안전과 생존이 사회적 화두가 된 상태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했다.

벡은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지만, 이를 회피하거나 대비하는 능력은 개인의 경제적 여력과 직업, 교육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듯이 위험 또한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됨을 지적하며, 위험사회에서는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을 넘어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벡은 위험사회에서 과학과 전문가의 권위 역시 근본적으로 재편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과학이 위험의 생산에 관여하면서도 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학은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독점적 권한을 ⓓ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지식에 기반했던 전문가의 권위 역시 해체되며,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전문가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정치' 중심의 다층적 체계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위험사회 속에서 안전한 삶을 ⓔ 누리기 위해 기존의 사회 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벡은 ㉡ '성찰적 근대성'이라 불렀다. 벡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성은 위험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구조화 이론의 원리를 분석하고, (나)는 위험사회의 해결 방법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구조화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나)는 위험사회의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③ (가)는 구조화 이론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소개하고, (나)는 위험사회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④ (가)는 구조화 이론의 특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나)는 위험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가)는 구조화 이론이 출현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나)는 위험사회의 다층적 의사 결정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재구성된 구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행위이다.
② ㉠은 ㉡과 달리, 기존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행위이다.
③ ㉠은 기존의 구조를 주체적으로 변용하기 위한, ㉡은 구조에 내재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이다.
④ ㉠은 기존 구조와 재구성된 구조의 유사성을, ㉡은 기존 구조와 새로운 구조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⑤ ㉠은 구성원을 제약하는 구조의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은 구성원을 위협하는 구조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6.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징적 표상을 통해 사람들은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② 상징적 표상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전문가 체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행위를 지속한다.
④ 전문가 체계를 통해 사람들은 낯선 환경과 타인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기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⑤ 추상적 시스템은 상징적 표상을 활용하여 전문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7.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벡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사회에서는 위험 관리 능력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②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은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한다.
③ 위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전문가 집단이 위험을 분배하는 권한은 강화된다.
④ 위험사회에서는 의사 결정의 참여자가 다양한 행위자에서 단일 주체로 전환된다.
⑤ 위험사회에서는 생산력 증대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위험이 경제와 정치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환경 정책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개인들은 일상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고, 육류 중심의 식단을 채식으로 전환하며, 과대 포장된 제품에 대해 포장재를 반납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은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공유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 만들고, 대형 마트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코너를 신설하게 하는 등 기존의 산업 구조와 소비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

①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을, 기든스는 기존 구조에 순응하지 않는 실천적 역량을 지닌 주체적인 행위자로 보겠군.
② 시민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실천하며 공유하는 모습을, 기든스는 시민들이 전문가 체계의 운용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겠군.
③ 기업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에 반응하여 '친환경적 행동 양식'으로 경영 방법을 변화시킨 것을, 기든스는 사회체계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보겠군.
④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 시민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벡은 사회 운영의 중심축인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겠군.
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의사 결정만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벡은 일상에서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려는 하위정치의 실천이라고 보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관망(觀望)하는
② ⓑ: 생성(生成)해
③ ⓒ: 발생(發生)하는
④ ⓓ: 상실(喪失)하게
⑤ ⓔ: 향유(享有)하기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로 면을 경사 없이 수평으로 만들면 빗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차량 주행에 위험 요소가 된다. 따라서 도로에는 반드시 배수를 위한 경사가 필요하다. 직선 도로에서는 횡단면 기준으로 도로 양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중앙이 높은 좌우 대칭의 내리막 경사를 둔다. 배수만을 고려하면 횡단 경사가 클수록 유리하지만, 경사가 너무 크면 운전 중 차량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노면이 젖거나 결빙이 된 경우에는 차량이 도로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직선 도로의 횡단 경사는 포장도로의 경우 2% 이내로 설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중앙선 기준 도로 폭 1m당 높이가 2㎝씩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곡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곡선을 따라 주행할 때 차량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원심력의 크기는 차량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반경에는 반비례한다. 이러한 원심력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곡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는 것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이다. 마찰력이란 접촉한 두 물체가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그 크기는 물체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진다. 이때 접촉면의 상태에 따른 마찰력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마찰 계수이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걸린 1톤 차량을 평평한 아스팔트 포장 위에서 끌기 위해서는 약 0.4 ~ 0.8톤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해당 노면의 마찰 계수가 0.4 ~ 0.8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면이 얼음으로 덮인 경우에는 마찰 계수가 0.2 ~ 0.3 수준으로 작아져 차량을 훨씬 쉽게 끌 수 있다.

도로의 마찰력이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보다 클 때에는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지만 마찰력이 원심력의 크기와 같아질 때부터 차량은 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도로를 포장할 때 내부에 작은 빈 공간을 두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한 다공성 포장이나 고무 가루를 넣은 특수 포장재를 사용하면 마찰력을 크게 할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도로가 결빙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도로 설계 단계에서는 도로의 마찰 계수를 결빙 시 마찰 계수의 절반 수준인 0.1 ~ 0.16 범위로 가정하는데, 이는 결빙 시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곡선 도로에서 직선 도로와 같은 횡단 경사를 그대로 적용하면 차량이 원심력으로 인해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곡선 도로는 바깥쪽을 안쪽보다 높게 만드는 ⓑ편경사를 적용한다. 편경사를 주면 원심력의 일부가 상쇄되어 곡선 도로에서 차량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가 줄거나 도로가 얼면 차량이 안쪽으

로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편경사는 최대 8% 이내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경사는 횡단 경사와 달리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왕복 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직선 도로와 곡선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는 완화 곡선 도로를 둔다. 이를 통해 직선 도로에서 일정 반경을 지닌 곡선 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운전자가 도로의 굽어짐을 조금씩 인지하게 하여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틀어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게 한다. 또 주행의 안전성을 위해 직선 도로의 횡단 경사를 완화 곡선 도로 구간에서 서서히 변화시켜 곡선 도로에서의 편경사로 전환한다. 완화 곡선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설계 속도와 곡선 도로의 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설계 속도에 비례하고 곡선 도로의 반경에 반비례한다. 설계 속도는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로, 곡선 도로의 반경이나 편경사 등 각종 계산의 기준이 된다. 실제 도로에서는 설계 속도의 약 85% 정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정한다.

[A] 한편, 도로에 곡선이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전방의 물체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워진다. 운전자가 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시거'라고 하는데 시거가 확보된 곳에서는 도로 위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체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물체와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만큼의 시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정지 시거라 하는데, 정지 시거는 물체를 인지한 순간부터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정지 거리보다 길어야 한다. 운전자가 물체를 보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제동 반응 시간이라고 하고, 이때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이동한 거리를 제동 반응 거리라고 한다. 정지 거리는 여기에 브레이크 작동 후 차량이 멈출 때까지 이동한 제동 거리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마다 주행 속도와 제동 반응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도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제동 반응 시간을 2.5초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설계 속도를 곱해 제동 반응 거리를 산정하고,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제동 거리를 산정한 후 정지 거리를 확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설계 속도는 실제 도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며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② 직선 도로의 횡단 경사를 2% 이내로 제한한 것은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도로가 결빙 상태일 경우에는 도로를 포장할 때 사용한 다공성 포장이나 특수 포장재의 효과가 줄어든다.
④ 곡선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커진다.
⑤ 직선 도로에서는 배수를 위해 도로 중앙을 높이고 양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좌우 대칭의 횡단 경사를 둔다.

11.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크기는 차량의 속도에 반비례하며, ⓑ의 크기는 곡선 도로의 반경에 비례한다.
② ⓐ는 도로 면의 상태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는 곡선 도로에서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일부 상쇄시킨다.
③ ⓐ는 도로 설계 시 마찰력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는 곡선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변경된 후 적용된다.
④ ⓐ는 곡선 도로의 반경이 클수록 작아지고, ⓑ는 마찰력을 줄여 차량이 곡선 도로를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한다.
⑤ ⓐ와 ⓑ는 모두 크기가 작아질수록 곡선 도로에서 차량이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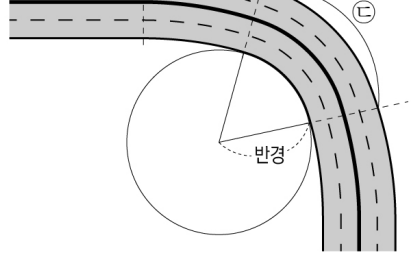
12.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로의 설계 속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할 때의 설계상 정지 거리는 길어진다.
② 운전자의 주행 속도가 달라지더라도 그에 따른 운전자의 제동 반응 거리는 변함없이 동일하다.
③ 운전자의 주행 속도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운전자의 제동 거리는 짧아지지만 실제 정지 거리는 길어진다.
④ 운전자의 제동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그에 따라 실제 정지 거리에서 제동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난다.
⑤ 전방의 물체를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든다면 설계상의 제동 반응 시간을 2.5초보다 더 짧게 바꿀 수 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 도로의 평면도와 설계 기준의 일부를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



설계 속도	120km/h
마찰 계수	0.1
횡단 경사	2.0%
편경사	8.0%
차로 수	왕복 4차로

① 왕복 4차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한다면 ㉠ 구간에서 중앙선 기준 도로 양 끝의 높이는 기존보다 더 낮아지겠군.
② 도로의 설계 속도를 시속 80㎞로 바꾸고 곡선 도로의 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 구간의 길이는 기존보다 줄어들겠군.
③ 곡선 도로의 반경이 커지거나 작아진다 해도 ㉢ 구간에 적용되는 최대 편경사는 더 높일 수 없겠군.
④ ㉢ 구간과 달리, ㉡ 구간은 주행의 안전성을 돕기 위해 도로의 횡단 경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설계가 필요하겠군.
⑤ ㉠~㉢ 구간은 모두 결빙 시 차량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의 마찰 계수를 더 크게 가정한다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더 쉬워지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인 펀드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공하지만, 실시간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이를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이다. 다수의 ETF는 KOSPI 200*과 같이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는데, 이때 ETF 증권 1주를 매수하는 것은 그 지수에 포함된 여러 기업의 주식을 기초 지수의 구성 비율만큼 나누어 모두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ETF는 소액으로도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높은 환금성을 지닌다.

ETF 증권의 본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장이 마감된 후, 하루에 한 번 산출되는 순자산가치가 있다. 순자산가치는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치를 합산한 뒤 부채를 뺀 값을 총발행 증권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그러나 ETF 증권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되므로, 투자자가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가 함께 제공된다. 한편, ETF가 거래소에서 실제로 사고팔리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 하는데, 이는 투자자의 매수·매도 수요에 따라 형성되므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와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장중 괴리율은 ETF 증권의 시장 가격에서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를 뺀 값을,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로 나눈 뒤 백분율로 나타낸다. 괴리율의 절댓값이 크다는 것은 ETF 증권이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가 ETF 증권을 매수·매도할 때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괴리율은 유동성 공급자가 차익 거래를 통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축소된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와 계약을 ⓐ 맺고 주식 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ETF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괴리율을 활용해 차익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자산 운용사와의 거래를 통해 ETF의 설정과 환매 과정에 참여한다. 여기서 설정이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기초 자산 바스켓*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당 ETF 증권을 새로 발행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반대로 환매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ETF 증권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 자산 바스켓을 다시 지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괴리율이 양수일 때, 설정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는 확보한 ETF 증권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반대로 괴리율이 음수일 경우에는, 환매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가 확보한 기초 자산 바스켓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차익 거래는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을 다시 본질 가치에 근접시키는 역할을 한다.

ETF는 추구하는 수익률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용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에 따라 ㉠ 패시브형 ETF와 ㉡ 액티브형 ETF로 구분하는데, 이들은 기초 지수와의 상관 계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상관 계수란 ETF의 수익률이 기초 지수의 움직임과 얼마나 유사하게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기초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임을 뜻한다. 패시브형 ETF는 기초 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상관 계수를 0.9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는 반면, 액티브형 ETF는 상관 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종목을 운용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별도의 금융 계약을 결합하여 수익 구조를 특수하게 설계한 ETF도 있다. ㉢ 레버리지형 ETF는 기초 지수의 일별 수익률에 2배나 3배 등 일정 배율을 곱한 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활용하여 지수 변동폭을 확대해 추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초 지수가 하락할 경우 자산 손실 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도 따른다. 왜냐하면 당일의 수익률이 반영된 자산 가치, 즉 평가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아 다음 날 수익률 계산의 기준으로 ⓑ 삼는 ETF의 특성상, 배율이 확대되어 적용되면 기초 지수가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하여 하락 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 지수가 100이고 투자 원금이 10,000원일 때, 기초 지수가 80으로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에서는 원금이 40% 감소하여 6,000원이 된다. 다음 날 기초 지수가 25% 상승하여 다시 100이 되더라도 평가액은 지수 상승 폭의 2배가 반영된 9,000원에 그치게 된다. 또한 ㉣ 커버드콜형 ETF는 증권을 보유하며 증권의 가격 흐름을 따라가는 동시에, 특정 가격에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전략으로 운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가 상승 전에 미리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 실현은 제한되지만,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의 위험, 운용 방식, 그리고 유형별 고유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 KOSPI 200 : 한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우량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종합하여 산출한 지수.
* 기초 자산 바스켓 : ETF를 구성하는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묶음.

1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반적인 펀드는 실시간 매매를 할 수 있는 ETF보다 환금성이 높다.
② 상관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ETF의 수익률은 기초 지수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나타난다.
③ 유동성 공급자는 ETF의 설정과 환매의 과정에 참여하며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이 본질 가치에 근접하도록 돕는다.
④ ETF 증권 1주를 매수하는 것은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주식 1주를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⑤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수요와는 상관없이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산출된다.

15. <보기>는 일정 기간의 날짜별 기초 지수를 기록한 표이다. ㉠~㉣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날짜	7/20	7/21	7/22	7/23	7/24	7/27	7/28	…	12/24
기초 지수	100	80	104	107	110	105	100	…	110
기간	[A]			[B]		[C]			

(단, 상품은 각 기간의 첫날에 매수하여 마지막 날에 매도하며, 해당 ETF의 수익률은 제시된 기초 지수의 수치만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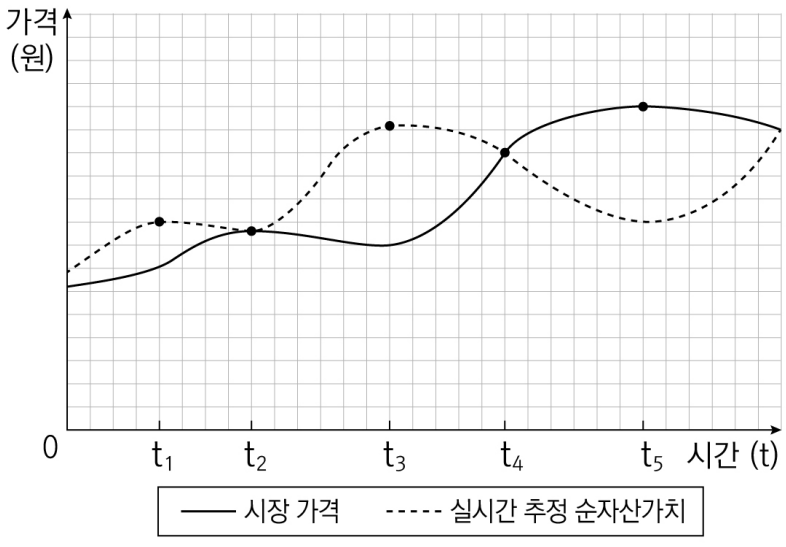
① [A] 기간에 목표 배율이 2배인 ㉢을 선택한 투자자는 지수 상승으로 인해 원금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수익도 실현했겠군.
② [B] 기간에 ㉠을 선택한 투자자는 기초 지수의 상승률과 유사하게 수익을 실현했겠군.
③ 기초 지수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가 [B] 기간에 ㉢을 선택했다면 목표한 배율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군.
④ [C] 기간에 ㉣을 선택한 투자자는 ㉠을 선택한 투자자와 달리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얻었겠군.
⑤ 기초 지수 변동 추이를 예상한 투자자가 [C] 기간에 기초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초과 수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보다는 ㉡을 선택했겠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 'A'의 장중 가격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단, 유동성 공급자와 투자자의 매수·매도 이외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① t_1에서 t_2로 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는 자산 운용사로부터 기초 자산 바스켓을 지급받기 위해 ETF A를 매수하겠군.
② t_2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자산 운용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은 t_3보다 적겠군.
③ t_3에서 t_4로 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의 차익 거래로 인해 ETF A의 총발행 증권 수는 증가하겠군.
④ t_4에서 t_5로 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는 확보한 ETF 증권을 시장 가격으로 매도하겠군.
⑤ t_5에서 투자자가 ETF A 증권을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하게 될 가능성은 t_1보다 더 크겠군.

17.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 : 전쟁 끝에 두 나라는 평화 협정을 맺었다.
   ⓑ : 그 선수는 상대를 성장의 본보기로 삼았다.
② ⓐ : 오랜 기다림 끝에 장미가 봉오리를 맺었다.
   ⓑ : 나는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③ ⓐ : 그 연극은 주인공의 독백으로 끝을 맺었다.
   ⓑ : 그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대화 상대로 삼았다.
④ ⓐ : 그는 끈을 여러 겹으로 두르고 매듭을 맺었다.
   ⓑ : 그는 일평생 근검절약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다.
⑤ ⓐ : 그들은 친한 친구 소개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 : 사장은 실력을 검증받은 그를 동업자로 삼았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인이 이 통판을 청하여 춘파의 말을 자세히 고했다.

"안동 김 처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통판이 대답하기를,

[A] "김 처사는 이전 시중 완국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무죄하게 외로운 섬에서 죽은 바 되었으니, 청운의 뜻이 없이 농부 어옹과 짝이 되어 세월을 보내니, 또한 지상의 신선이라. 내 비록 얼굴을 본 적이 없으나 그 덕행을 짐작하니 그 아들도 반드시 충효를 모두 갖추었을지라. 속담에 하였으되, '호랑이는 개의 새끼를 아니 낳는다.' 하였으니, 부인은 시비를 보내어 자세히 탐지하라."

하니, 부인이 춘파를 보고 말하기를,

"춘파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반가운지라. 이제 농옥의 혼사를 의논하고자 하여 시비를 시켜 한 번 보고 완전히 정하고자 하니, 춘파는 한 번 걸음을 아끼지 말라."

하고 시비 추월을 불러 말하였다.

"춘파와 같이 가서 공자를 보고 오라."

하고, 춘파를 재촉하니, 춘파가 말하기를,

"이같이 믿음으로 신중히 하시니 바른대로 말씀하오리다. 저와 함께 온 여인은 과연 여승이 아니오라 김 처사 댁 시비 향임이라. **소저의 화용**을 보러 왔사오나, 바른대로 말씀하오면 자세히 뵐 길이 없을 듯하여 잠깐 기망하였사오니 죄송하오이다."

하고, 향임이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하였다.

부인이 시비로 하여금 붙들어 대청마루에 올리고 위로하여,

"일의 형세가 그러할지라, 무슨 죄를 내리겠는가?"

하고, 즉시 세 사람을 안동으로 보내었다.

각설(却說). 김 처사는 부인과 더불어 향임과 춘파를 보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루는 까치가 창밖에 와 세 번 짖기에 처사 부부가 길흉을 알지 못하여 민망히 여겼는데, 이윽고 향임이 밝은 낯빛으로 들어왔다.

급히 허실을 묻자 대답하기를,

"이 소저는 곧 천상 선녀라. **인간 세상의 사람 같지** 아니하니 형용하여 말씀하옵기 어렵나이다."

이 통판 댁 시녀가 왔음을 고하니, 부인이 불러 그 댁 안부를

물은 후 다과를 대접하고 선옥을 부르니 선옥이 들어왔다. 추월이 감히 머리를 들어 보지 못하고 곁눈으로 잠깐 보니, 온화한 용모와 영리하고 비범한 풍채가 **인간 세상의 사람 같지** 아니하여 우러러보지 못할 정도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김선옥은 이농옥과 혼인 후, 농옥에 대한 오해로 가출한다. 이에 일가친척 형옥이 집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 선옥을 데리고 오자, 다른 가족들과 달리 부인 농옥만이 그가 가짜임을 주장하고 김 처사는 관아에 진정을 올린다.

"삼가 ㉠진정을 올리는 사유는 제가 팔자가 기박하여 늦게야 자식 하나를 두었는데, 저의 나이 칠십이라. 생전 재미를 보자 하고 경주 거하는 이 통판의 여식으로 혼인하여 수년이 되오매, 불초자식이 홀연히 부모를 버리고 간 곳 없더니 삼년 만에 돌아오매, 부모와 친척, 노복이며 이웃이 모두 보고 반겨하오나 오직 며느리만이 **홀로 부군이 아니**라 하여 가문이 장차 끊기게 되옵기로, 사사로이 결단치 못하여 밝은 관청 아래 하소연하오니, 인륜을 밝게 처분하옵시기 천만 바라나이다."

하니 부사가 보시기를 다하고 세 사람을 가까이 오라 하고 물었다.

"부자는 천성지친(天性之親)이니 어찌 천륜을 속이리오? 김 씨는 들으라. 누가 네 아들이며 네 종질이뇨?"

처사가 여쭈었다.

"동편에 서 있는 것은 자식 선옥이오, 서편에 서 있는 것은 종질 형옥이로소이다."

부사가 김 처사를 자세히 보고 선옥을 또 살펴보니 부자가 혹 닮지 아니하나 그 며느리가 다른 말을 함이 무슨 연고 있는가 하여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삼부자는 한편이다. 한편의 말로 판결치 못하리니, 지금 너의 부인과 며느리를 송정(訟庭)*에 들게 하라."

처사가 즉시 집에 기별하여 부인과 며느리로 하여금 송정에 들게 하고, 부사가 관비로 하여금 장 부인에게 물어 말하였다.

"저기 섰는 자가 분명 자식인가?"

장 씨 고하였다.

"천륜이 지중하며 어찌 타인을 자식이라 하오며, **갓 나서부터 기른 자식**을 어미가 되어 어찌 모르리까?"

부사가 농옥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제 너의 시부모가 더 분명히 저의 자식이라 하거늘, 네 어찌 홀로 부군이 아니라 하니, 비록 부부가 오륜에 들었으나 부자는 오륜의 으뜸이라. 어찌 그 부모의 정리와 같으리오?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시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하거늘, 농옥이 고하였다.

"부부의 정리는 부모의 정리에 지나지 못하려니와, **외모에 나타난 얼굴이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사가 노하여 말했다.

"그 부모는 어려서부터 기른 자식의 얼굴을 어찌 모르고 네 홀로 안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병자**의 말이로다."

농옥이 또 여쭈되,

[B] "병자 같사오면 아무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침식과 행동거지를 어찌 평상시와 같이 하오리까? 분명 부군이 아님은 위에 있는 하늘이 굽어살피시오니, 바라건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은택을 입게 하시어 김 씨의 인륜을 찾게 하시고 신의 정절을 밝히게 하소서."

하거늘, 부사가 양편의 말을 듣고 진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판결하기를,

"이 송사는 진짜 선옥을 보기 전에는 귀신도 결단하지 못할지라. 이 씨가 고한 바와 같으면 진짜 선옥이 아닌가 하며 김 씨 부부가 고한 바를 취하면 분명 선옥인가 하오니, 김 처사는 저 선옥을 다시 장가들게 하여 집안의 법도를 안정시키고 이 씨는 본가에 가 있어 진정한 선옥이 돌아오는 때를 기다림이 마땅하다."

이날 처사 부부와 아들과 조카, 그리고 농옥이 송정에 들어가 부사의 처결을 얻자, 처사는 부인과 선옥으로 더불어 농옥을 내칠 의논을 작정한 후에 친척을 모아 부사가 판단한 문장을 내어 두루 보이고 며느리를 내쫓고 새로운 처를 취할 뜻을 고하였다.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

* 송정 : 송사를 처리하는 법정.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통판의 부인은 혼사를 결정하기 위해 추월을 시켜 선옥을 보게 한다.
② 김 처사의 부인은 까치가 짖고 간 일을 길조로 여겨 향임을 반갑게 맞이한다.
③ 이 통판의 부인은 춘파의 고백을 듣고 춘파 일행의 입장을 이해하여 죄를 묻지 않는다.
④ 관아에서 돌아온 김 처사는 농옥과 의논하지 않고 친척들에게 선옥의 처를 새로 구할 뜻을 알린다.
⑤ 부사는 삼부자가 한편이라고 생각하여, 김 처사의 부인과 농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아로 불러들인다.

1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 언급된 농옥에 대한 불신이 ㉡을 통해 해소된다.
② ㉠에 언급된 선옥의 가출은 ㉡에서 그 이유가 밝혀진다.
③ ㉠에 언급된 선옥의 정체는 ㉡을 통해 가짜임이 드러난다.
④ ㉠에 언급된 김 처사의 염려에 대해 ㉡에서 해결책이 제시된다.
⑤ ㉠에 언급된 김 처사와 농옥의 입장 차이는 ㉡으로 인해 좁혀진다.

20.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해당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② [B]는 자신의 행동이 평상시와 같음을 근거로 상대방의 의견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③ [A]는 명령의 형식을 통해, [B]는 부탁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④ [A]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B]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⑤ [A]는 인물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화산중봉기」는 남녀 주인공의 결연과 이별, 그리고 재회 과정을 다양한 화소를 활용하여 드러낸 작품이다. 먼저 남녀 주인공의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속임을 통한 선보기' 화소를 활용하여 결연을 추진하며, 주변 인물을 통해 남녀 주인공의 비범함을 드러낸다. 또한 이별한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는 과정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진가쟁주' 화소가 활용되는데, 주인공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은 인물의 소신 있는 태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① 향임이 '소저의 화용'을 자세히 보기 위해 여승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점에서, 속임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살피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② 향임이 농옥을, 추월이 선옥을 '인간 세상의 사람 같지' 않다고 평가한 것에서,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 있는 남녀 주인공의 비범함이 주변 인물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③ 형옥이 데려온 남자가 '갓 나서부터 기른 자식'이 맞다는 김 처사의 부인과 부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농옥이 대립하는 모습에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④ '홀로 부군이 아'님을 주장하는 농옥을 '병자'로 치부하는 부사의 모습에서,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려 시련을 겪게 만드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시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부사의 말에 '외모에 나타난 얼굴이야 어찌 모르겠'냐고 대답하는 농옥의 대처에서, 뜻을 굽히지 않는 인물의 소신 있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문이라면 ⓐ 형제슈퍼 주인인 그로서도 결코 빠질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작년 요맘때 원미산을 샅샅이 뒤졌다구요. 없었어요. 텐트 치고 있던 몇 사람들도 그런 **사내**는 본 적이 없대요. 벌써 어디론가 떠난 거예요."

네 사람은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 한 잔씩의 소주를 입안에 털어 넣으며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성님. 우짜다가 그 사람은 산으로 들어갔답니꺼. 밥술이나 묵고 자슥도 둘이나 있다 하던데."

ⓑ 주 씨는 암만해도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면 그래도 ⓒ 박 씨만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이 원래 서울 무슨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인디 대학 꺼정 나오고 인물도 썩 괜찮은 편이라는 거여. 저기 있는 남궁원보담야 못혔겠지만서두."

박 씨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정도가 고작이었다. 물론 거기에 보탤 말이야 하루를 해도 모자랄 만큼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다. 직장에서 쫓겨난 바람에 그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마누라가 결국 서방 잡아먹은 셈이 되었다는 설도 있었다. 누군가는 월급보다 많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 빚에 몰려 그리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세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내가 알지 못할 큰 죄를 지고 쫓겨 다니는 중이었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원미산에는 임진왜란 때 죽은 병졸 귀신이 있다잖아요. 그 귀신이 해마다 사람 하나씩을 잡아먹는대요. 올해도 저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약수터에서 내려오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틀림없어요. 귀신이라니까."

ⓓ 엄 씨의 발상은 노상 이렇게 엉뚱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도시의 밀폐된 공간과 군중들 사이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적 충동을 느낀 사내는, 도시에서 벗어나 원미산으로 향한다.

[A]

자신이 내는 발자국 소리라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가슴속에 우물이 있다면 그 우물이 가득 차올라서 한 줌의 바람에라도 출렁 물이 넘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이 가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는 **숲을 헤매**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깊은 터널처럼 뚫려 있는 숲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얼마 걷지 않아 시야가 트이고, 작은 키의 잡목들이 제멋대로 자라나고 있는 구릉이 내다보이곤 하였기 때문에 숲을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원을 그리며 맴**을 돌 수밖에 없었다. 맴을 돌다가 그는 다시 쥐와 맞부닥쳤다. 아까 쉼터를 차지하고 있던 그 쥐였다. 그와는 열 발자국쯤의 거리를 두고 쥐는 망연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도 쥐의 까만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 혼자 떨어져 나와 산을 헤매던 한 마리 쥐의 구부정한 등허리 위로 청색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상한 놈이군. 그가 몸을 돌렸다. 몇 걸음 떼어 놓고 돌아보아도 쥐는 거기에 있었다. 그의 구부정한 등허리에도 어둠이 한 켜 내려앉았다. 그는 다시 나무둥치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다.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꺼풀 밑의 어둠은 더욱 어지러웠다.

지난밤, 그는 **두 청년**이 텐트를 거두어 내려가 버린 것을 발견했었다. 언제 내려간 것일까.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나마 보지 못한 게 아쉬웠다. 이제 주홍빛이 새어 나오던 텐트도, 서투르긴 하지만 다정했던 기타 소리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어둠에 묻혀 있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는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다. 기타 소리가 안 된다면 새어 나오는 **한 가닥의 빛**이라도, 그것도 안 된다면 잠들어 있는 건강한 숨소리라도 곁에 두고 싶었다.

더 이상 어두워지기 전에 어딘가 잠자리를 찾아 숲을 빠져나가야 함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나무둥치에 몸이 붙어 버린 것 같았다. 기다란 손가락을 가진 딸아이와 그 애가 가져야 할 피아노가 떠올랐다. **문갑 위**에 놓아두고 나온 그의 **손목시계**도 떠올랐다. 몇 시나 되었을까. 그는 **애써 시간을 짐작해 보**려 하였다. 문자판 위에 길게 흠집이 남아 있는 그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무둥치에 붙어 버린 몸이 떨어지지 않아서, 문갑 위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어서, 또다시 밤이 찾아와 버린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마침내 그는 숲 가운데 홀로 남아 흐느껴 울었다.

"결국 그 남자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군요."

술이 다 깨어 버린 얼굴로, 그래서 적잖이 침통한 기색인 엄 씨의 말이었다.

"사나 새끼야 사라졌거나 뒈졌거나 신경 쓸 것도 없지만도 마누라들캉 새끼들은 우째 되었답니까?"

주 씨는 역시 가족들한테 관심이 많은 모양이었다. 행복사진관 엄 씨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애처가지만 우락부락 덤비면서도 식구들한테 잔정이 많기론 주 씨를 따를 수 없었다.

"한동안은 남편에게 ㉠ 소식이 올까 기두리고 또 찾아도 봄시로 그럭저럭 살아가더니 어디론가 떠나 버렸지. 식구들마저 가 버리니께 누구 하나 찾으러도 안 댕기고 흐지부지 잊혀진 일이 돼 버린 거여. 아즉도 산에 있는 건지, 아니믄 다시 만나 사는 건지 또 죽은 건지 알 수도 없구 말여."

아직도 산에 있는 건지, 하면서 박 씨는 원미산을 돌아보았다.

"박 씨 아저씨는 그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형제슈퍼 주인인 김 반장이 물었다.

"아니. 못 봤지. 말만 들은 거니께."

"그 식구들은요?"

"없다니께. 아니, 그럼 자네는 보았능가?"

박 씨의 되물음에 김 반장이 고개를 흔들었다.

"주 씨 자네는 혹시 얼굴이라도 본 적이 있능가?"

주 씨도 손을 내저었다.

"엄 씨는?"

"저도 못 봤지요. 이야기야 여러 번 들었지만서두 그 사람을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던걸요."

"에헤이, 그라모 여태 우리가 무신 ㉡ 이야기들을 했노?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만 안 했나. 하여간에 시간도 많이 됐으이 고마 들어가 잡시더. **자는 기 남는** 기다."

주 씨의 말에 김 반장이 옳소, 를 외치며 낄낄거렸다.

"그려, 들어가서 한숨 눈이나 붙여야 쓰겄다."

박 씨가 에이 이눔의 물것들, 하면서 팔뚝을 탁 쳤다.

"도회지에선 모기 구경 허기가 힘들다는디 저놈의 강 노인 밭 때문에 모기 극성이 엥간혀야지."

"그런 말씀 마소, 성님. 모기도 다 살자고 허는 짓이라요. 살라꼬 애쓰는 놈은 좌우당간 살려야 하는 기라요."

"정말 이대로 나가단 각시 데려와도 굶기기 딱 알맞아요. 장사가 갈수록 이문만 박해지고 나가는 돈만 커지니."

–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

22.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인용 부호 없이 대상에 대한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대상과 인물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23.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와 달리, ⓒ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② ⓐ와 ⓓ가 사내의 행방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는 엉뚱한 상상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③ ⓑ는 사내가 원미산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에게 이유를 묻고, 이에 ⓒ는 확실한 근거를 들어 대답한다.
④ ⓒ는 사내에 대한 대략적인 신상을 알리고, 이후 ⓑ와 ⓓ에게 사내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⑤ ⓓ는 사내의 가족에게, ⓑ는 사내에게 각각 주목해 대화를 이어 가고, 이와 관련하여 ⓐ는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2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을 기다리는 인물은 ㉡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② ㉠의 부재는 ㉡ 속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③ ㉠을 알기 위한 인물의 노력은 ㉡을 통해 다수에게 인정받는다.
④ ㉠을 알 수 없는 상황은 ㉡에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을 통해 해결된다.
⑤ ㉠이 올 것이라는 확신은 ㉡에 참여한 인물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장면을 교차 서술하여 개인이 처한 고립의 문제가 피상적으로 소비되는 세태를 보여 준다. 도시에서 벗어나 사회와 단절하고자 한 사내는 원미산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오히려 타인의 존재를 갈망하며 관계의 부재로 인한 내면적 고독을 느끼게 된다. 반면 동네 사람들은 '사내'의 행방을 두고 여러 추측을 하지만, 타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곧바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① '사내'와 관련된 소문을 둘러싸고 동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사내가 '숲을 헤매'는 장면을 대비하여 교차 서술하고 있군.
② 숲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원을 그리며 맴'도는 사내의 모습에서, 도시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내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③ '두 청년'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한 가닥의 빛'이라도 곁에 두기를 원하는 사내의 모습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타인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숲에 홀로 남아 '문갑 위' '손목시계'를 떠올리며 '애써 시간을 짐작해 보'는 사내의 모습에서, 관계의 부재로 인한 내면적 고독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사내의 행방에 대한 대화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평하며 '자는 기 남는'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타인의 삶이 피상적으로 소비되는 세태를 엿볼 수 있군.

[26～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찌하여 금세(今世) 사람 **과거에 병이 깊**어
경서를 모르고서 의의(疑義)*를 먼저 짓고
역대사(歷代史) 못 알아도 시부를 능히 짓네
경세책(經世策) 사대표(事大表)를 제멋대로 그려 내고
침 뱉어 읽고 나서 과거를 기다리네
팔월에 과장 열면 이월부터 분주하여
집안사람 굶을망정 선접량(先接粮)* 모아 내고
힘 쓰고 말 잘하는 저 소년 뽑아내어
사립문 밖 좋은 집을 다투어 사들여
예닐곱 달 객지 묵고 무수 전장(戰場) 겪은 후에
과거 보는 무리 다 모여서 내일이 과거일이면
아침밥 일찍 먹고 사립문에 붙어 서서
도포 창의 벗어 놓고 허리에 끈을 띠고
등(燈)대로 기(旗)를 삼아 문을 열라 고함하니
ⓐ 금란관(禁亂官)* 이 아이는 나라 법 손에 쥐고
무엇이 겁이 나서 낯 못 되어 문을 여니
우우우 하는 소리 선비 입에 난단 말가
그중의 **약한 선비 엎어지면** 하릴없네
짓밟고 가는 사람 측은심 전혀 없다
울타리 곁에 앉기 사람마다 다투오니
ⓑ 친척 사돈 모르거든 붕우장유 어이 알리
무례하고 못된 말 차마 어이 찢어진 의관 끝이 없네
하루 밤낮 전쟁하듯 겨우 하여 정했구나
과거 글제 못 걸려도 명지를 풀어내어
아랫부분 팔구행의 글귀를 메워 놓고
ⓒ 과제 먼저 보려 하고 좌우에 둘러서니
과제 거는 저 군사야 얼핏 펴고 내리거라
기와 가루 돌 조각이 올라가면 죽으리라
해제를 못 보아도 첫 글귀를 지어 쓰니
동(東) 물어 서(西) 봉답은 오히려 으슥하외다
묻는 말 내 알겠냐 글제 보니 의의(疑義)이라
경제책(經濟策)* 아득하니 설폐구폐(設弊求弊)* 무엇인고
글자가 빠지거니 문리(文理)야 되나마나
일찍이나 **바치**오면 이 과거 못하올까
적게나마 할 일 알아 문의(文義)를 살피다가
붓 잡고 돌아보니 **바닥장(張)*이 되**었구나
그르쳐 들이치고 그날에 백 리 가네
제 집의 돌아와서 부형에게 반면(反面)하면
첫말의 묻는 말씀 **천지축(天地軸)* 바쳤느냐**
그랬다 하다 하면 **대방주(待榜酒)* 바삐 빚**고
아무리 잘 지어도 늦었으니 거짓이라

– 김약련, 「과폐탄」 –

* 의의 : 경서의 구절을 해석하고 논리를 세우는 것.
* 선접량 : 과거를 볼 때 남보다 먼저 과장에 들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모은 재물.
* 금란관 : 과거를 보는 과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둔 벼슬.
* 경제책 :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대책.
* 설폐구폐 : 정책이나 제도의 폐단과 그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
* 바닥장 : 마지막으로 글을 지어서 바침.
* 천지축 : 과거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를 100장씩 묶어 첫 번째는 천축, 두 번째는 지축이라 함.
* 대방주 : 과거 시험 등에서 합격자 명단(榜)이 발표되기를 기다리며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술.

(나)

공자는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성인이면서 오히려 노자에게 예를 물었고, 담자에게 관직에 대해 물었으며, 사양에게 거문고를 배웠다. ⓓ 안자는 현인이라 학식이 많으면서도 오히려 학식이 적은 이에게 물었고, 능하면서도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물었으니, 배우기를 좋아하여 일정한 스승이 없음이 이와 같았다.

지금 사람들은 **서사(書史)를 약간 섭렵하**면 곧 함부로 **잘난 체하**여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 생각하고, 기이한 문장을 발견하면 세상에서 빼어난 학자로 여기고, 어려운 글자를 기억해 내면 남보다 뛰어난 견해인 양 여기고, 우연히 세상에서 오독하던 글자의 독음이라도 깨달으면 그들의 무식함을 비웃지만 자신도 오독하는 것이 무수한 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궁벽한 시구절이라도 찾게 되면 남들의 고루함을 조롱하지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줄 알지 못한다. 혹자는 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얼버무려 자취를 가리고, 혹자는 식견이 어수룩한 자들에게 자랑하여 과장을 일삼아 명성을 훔치는데, ⓔ 이러한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A] 전에 『운부군옥』을 보니 "촉(蜀) 땅에 납어(鮥魚)가 있는데 나무를 잘 오르고 아이 울음소리를 낸다. 맹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였고, 명나라 문인의 『오잡조』에도 "지금 영남에 예어(鯢魚)가 있는데 발이 네 개여서 늘 나무 위를 기어오르고, 점어(鮎魚)도 대나무 가지에 오를 수 있으며 입으로 댓잎을 문다."라고 하여 마치 맹자가 보고 들은 적이 없어 잘못 말한 것을 저들이 홀로 박식하여 밝혀낸 것처럼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장 가소롭다. 설령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가 있다 한들 특이한 물고기에 불과하니, 어찌 이것 때문에 연목구어(緣木求魚)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에 비유하지 못한단 말인가. 물고기가 물에 살고 나무에 살지 못하는 것은 **상리(常理)**이며,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는 바로 **무리(無理)한 중에 간혹 있는 경우**이다. 맹자가 비록 이런 물고기를 알았더라도 비유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것을 알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의아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를 근거로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말이 되겠는가. 옛날에 **화서(火鼠)와 빙잠(氷蠶)***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또한 화서와 빙잠을 알지 못한다고 희롱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관규여측(管窺蠡測)*의 소견으로 함부로 타인을 논평하는 경우가 모두 이에 해당하니, 그 폐해는 결국 반드시 연석(燕石)을 보배로 여기며 화씨(和氏)의 박옥(璞玉)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산계(山鷄)를 귀히 여겨 봉황이 상서롭지 않다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식자의 눈으로 본다면 어찌 너무나 애석하고 크게 탄식하지 않겠는가.

– 윤기, 「한거필담」 –

* 화서와 빙잠 : 불에서 사는 쥐와 얼음에서 기르는 누에를 의미하는 말로, 전설상의 동물.
* 관규여측 :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림.

2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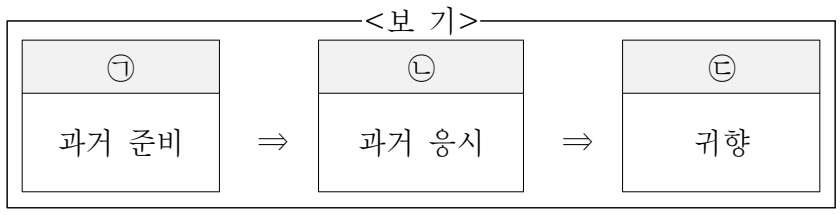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② 성현의 행적을 나열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시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는 응시자들의 성화를 못 이긴 관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문을 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는 친척의 도움 없이는 과거에 응시하기 힘든 선비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는 과제를 먼저 보고 답지를 빨리 작성하려는 응시자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는 학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현인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⑤ ⓔ는 그릇된 자세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28. (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① ㉠에서 선비가 '집안사람 굶을망정 선접량'을 모으는 이유는 '과거에 병이 깊'기 때문이겠군.
② ㉠에서 선비가 '아침밥 일찍 먹고 사립문에 붙어 서' 있는 이유는 ㉡에서 '울타리 곁'과 같은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겠군.
③ ㉡에서 글제를 본 선비가 '묻는 말 내 알겠냐'라고 한 이유는 ㉠에서 '경서를 모르고서 의의를' 짓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겠군.
④ ㉢에서 부형이 '천지축 바쳤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에서 선비가 답지를 '일찍' '바치'었기를 바랐기 때문이겠군.
⑤ ㉢에서 집안사람들이 '대방주 바삐 빚'는 이유는 ㉡에서 선비가 '바닥장이 되'게 답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군.

29.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자가 성인인 이유는 예와 음악을 배웠기 때문이다.
②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 남에게 배우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
③ 어려운 글자를 잘 기억해 낼수록 뛰어난 견해를 지닌 사람이다.
④ 빼어난 학자로 인정받기 위해 기이한 문장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이해하기 어려운 시구를 찾아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 힘써야 한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검은 백조(The Black Swan)'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서양 고전에서 사용되던 용어였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1697년 호주 대륙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한 후부터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깨지고 말았다. 이후 '검은 백조'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의 문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연목구어'는 '모든 물고기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나온 말이겠군.
② '납어'와 '점어'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은 '연목구어'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의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했겠군.
③ '납어'와 '점어'가 발견된 후 '모든 물고기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라는 명제는 더 이상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겠군.
④ '납어'와 '점어'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할 수 없다'라는 진술은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없겠군.
⑤ '납어'와 '점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는 오류가 없겠군.

3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학문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혀, 진정한 앎을 추구하는 자세와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배우게 된다. (가)는 올바른 태도로 학문하지 않고 급제만을 목표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나)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지엽적 태도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현학적 태도로 학문에 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① (가)에서 '약한 선비 엎어지면' '짓밟고 가는' 것은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겠군.
② (가)에서 '경제책 아득하니 설폐구폐 무엇인고'라고 하는 이유는 선비의 학문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③ (나)에서 '화서와 빙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는 말을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앎을 추구하는 자세라 할 수 있겠군.
④ (나)에서 '무리한 중에 간혹 있는 경우'를 근거로 하여 '상리'에 해당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지엽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겠군.
⑤ (가)에서 '역대사 못 알아도 시부를 능히 짓'는 사람은 급제만을 목표로, (나)에서 '서사를 약간 섭렵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현학적 태도로 학문에 임하는 사람이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딜 가나,
나는 원효로행 버스를 기다린다.
어디서나 나는
원효로행 버스를 타고 / **돌아**온다.
릴케의 시구를 빌리면,
깊은 밤 /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누리 안에서
고독한 공간으로 / 혼자 떨어져 가는
그 땅덩이에서
나는 / 호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A]
하루 종일 거리를 서성거렸고
때로는 / 사람을 방문하고
외로운 친구와 더불어 / 잔을 나누고
밤이 되면 / 어디서나 나는
원효로행 버스를 기다린다.
이 갸륵하고 측은한 **회귀심**.
원효로에는
종점 가까이 / **가족이 있**다.
서로 등을 붙이고 [B]
하룻밤을 지내는 측은한 화목들.
어둑한 버스 안에서 / 나는 늘 마음이 가라앉았다.
릴케의 시구를 빌리면,
이처럼 떨어지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받아 주시는
끝없는 부드러운 그 손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

– 박목월, 「회귀심」 –

(나)

분수는 홀로의 분수로 허공에 [C]
사직(社稷)을 내다 걸지만
말로 지은 신전인 듯 누란의 기둥 끝없이 허물어져
변경 가장자리까지 사막의 모래 출렁거린다
일렁이는 빛살의 파문 둥글게 말아 물줄기 사이로 [D]
꾸려 넣는 무지개 생(生)이
물이 꿈꾸는 또 다른 물일까
나는 제 분수도 모르면서 **평일 오후 내내**
분수대 옆 시멘트 계단에 주저앉아
공원의 분수가 어떻게 **주렴을 펼**치는가
눈앞의 호사 **끝없이 거둬들이는**
저 **분수대의 도로(徒勞)*** 물끄러미 바라본다, **푼수!**
햇빛 속으로 내다 말리는 건 하릴없는 시간일까
막막한 **쳇바퀴 살림** 저도 지겨운지
척추 허물어뜨린 분수 하나
신문지로 얼굴 가리고 건너편 벤치 위에 길게 널브러진다 [E]
그래도 그가 풋잠에 섞는 건 오색 꿈결일까
그늘 벗은 저녁 햇살이 그쪽으로만
환한 무지개 자꾸 지펴 보내고 있다

– 김명인, 「분수」 –

* 도로 : 아무런 보람이 없는 수고.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3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 '호구책을 마련하'려 '하루 종일' '서성거'리는 것에서 생계를 위해 애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② [B] : '서로 등을 붙이고' '지내는' 가족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에서 가족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난다.
③ [C] : 분수가 '허공에 / 사직을 내다' 건다고 표현한 것에서 공중으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의 모습이 드러난다.
④ [D] : '무지개 생'을 '물이 꿈꾸는 또 다른' 삶으로 표현한 것에서 꿈을 꾸는 주체가 분수임이 드러난다.
⑤ [E] : '저녁 햇살'이 비치는 '벤치 위에' '널브러'져 '풋잠'을 자는 것에서 화자가 동경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일상 속에서 발견한 반복의 양상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과 그 삶을 감싸안아 주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나)는 공원에서 마주한 분수와 분수를 바라보는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① (가)에서 화자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나)에서 분수가 '주렴을 펼'쳤다가 '끝없이 거둬들이는' 것에서 화자가 발견한 반복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에서 화자는 '어디서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자신의 '회귀심'에 주목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자신이 갸륵하고 측은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③ (가)에서 화자는 '어둑한 버스 안에서' '끝없는 부드러운 그 손'을 느끼는 것을 통해 고단한 하루를 마친 자신을 포용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④ (나)에서 화자는 '분수대의 도로'를 '평일 오후 내내' 바라보는 자신을 '푼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분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⑤ (나)에서 화자는 '쳇바퀴 살림'으로 인해 '척추 허물어뜨린 분수'에 주목해 반복을 지속하는 것이 지겨운 삶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유명 해외 브랜드에서 한국의 보자기를 활용한 패션쇼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나요?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들어 본 분들도 계시네요. 이처럼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전통 보자기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용어의 검색량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보자기의 쓰임과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자기는 물건을 감싸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생활용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보자기와 가방의 쓰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가방은 주로 '넣다'의 의미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데 비해, (㉠ 자료 제시) 보자기는 화면과 같이 '싸다', '덮다', '가리다' 등 다양한 의미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보자기를 운반의 용도 외에도 보관이나 포장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자기는 만들어진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하여 만든 조각보는 보자기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입니다. (㉡ 자료 제시) 화면 위쪽에 보이는 조각보는 다양한 사각형 모양의 조각 천을 연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한편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조각보처럼 원 모양들을 상하좌우로 일정하게 겹쳐 보이도록 배열한 형식도 있었는데요, 화면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일정한 원형이 반복되며 자연스럽게 네 장의 꽃잎 모양이 연출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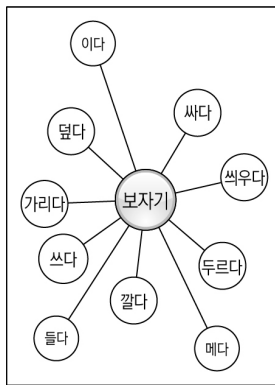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보자기의 종류는 수보입니다. 수보는 바탕천에 문양을 자수로 놓은 보자기인데, 혼례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선물을 포장할 때 사용했습니다. 수보는 면직물로 만든 바탕천에 명주를 안감으로 덧대어 만들었습니다. 수보의 문양으로는 신성성을 의미하는 나무나 행복과 안락을 의미하는 꽃, 다산을 의미하는 열매 등이 사용되었고, 학, 봉황, 나비 등의 문양이 곁들여졌습니다. (㉢ 자료 제시) 그럼 화면에 보이는 수보에는 어떤 문양이 보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이 수보는 꽃 문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확대한 부분에서 나비와 같은 곤충 문양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자기는 우리 선조들의 소박함과 심미성을 보여 주는 공예품입니다. 오늘 소개한 보자기와 관련된 자료는 ○○전통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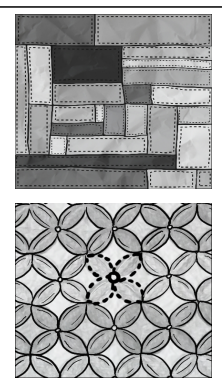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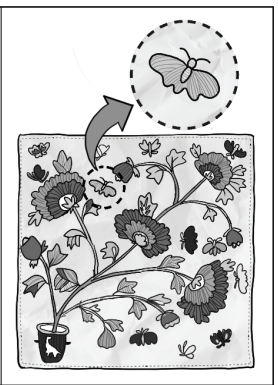
① 화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여 발표 대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④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 내용의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
⑤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

① [자료 1]은 보자기의 다양한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② [자료 2]는 다양한 사각형 모양의 조각 천을 연결하여 보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③ [자료 2]는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며 보자기에 새로운 문양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④ [자료 3]은 수보에 사용된 문양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⑤ [자료 3]은 주된 문양에 곁들여진 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에 활용하였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1 : 전통 혼례 장면에서 본 화려한 문양의 보자기가 수보였구나. 그런데 수보의 바탕천과 안감은 다르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학생 2 : 쓰다 남은 천을 활용하여 새로운 보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조각 천을 조합하다 보면 다양한 무늬의 조각보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발표자가 알려 준 누리집을 찾아봐야겠어.

학생 3 : 한국 전통 공예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외국인 친구에게 전통 공예에 대해 소개하고 싶었는데 발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① 학생 1은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고 있다.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38～42] (가)는 방송 대담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함께 시청한 영화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 1'이 (가)와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비평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영화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영화 돋보기'입니다. ㉠ 최근 국내외 영화들에서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평론가 김○○님을 모시고 영화 속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많은 영화에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평론가 : 네, 그건 아마도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영화에 반영된 것이죠.

진행자 : 영화 속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적 모색의 결과로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 형태는 영화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평론가 : 일단 혈연관계가 아닌 이들이 함께 거주하며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의 대체를 모색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 영화에서 다양한 가족 관계를 다루는 현상이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평론가 : 그럴 수도 있겠지만, ㉢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보완하는 측면에 주목하여 영화를 감상한다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들이 등장인물을 주로 소외 계층으로 묘사하여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심어 줄 가능성도 있어 감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학생 1 : 우리 이번 주 '영화 돋보기'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 비평문을 쓰기로 했잖아. 영화에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을 지난 동아리 시간에 함께 감상한 「□□ 가족」 영화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

학생 2 : 영화 중간까지 보고 나서야 등장인물들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을 정도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학생 3 : ㉣ 난 등장인물들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서 더 가족같이 느껴졌어.

학생 1 : 영화를 보고 난 후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너희 생각은 어때?

학생 2 : 누구도 돌봐 주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 3 :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그런데 새로운 가족 형태를 구성한 사람들이 소외 계층으로 묘사되고, 사회적 일탈 행위를 벌인다는 점에서 영화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A]

학생 1 :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진짜 가족들에 대한 반감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너희도 그랬어?

학생 2 : 그런 부분도 있었어. 게다가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결국 사회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웠어.

학생 3 : 난 영화적 설정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 그런 측면보다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한 의미에 주목하여 비평문을 작성하면 좋겠어.

[B]

학생 1 : 그래. 그럼 자료를 좀 더 조사해서 방송 내용과 우리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써 볼게.

(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영화에도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맺지 않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가족을 대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들은 대부분 등장인물들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통해 가족이라는 개념이 꼭 혈연이나 법적 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신문(20××.×.×.) 기사에 따르면 영화 속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담아내는 것이 소외 계층의 존재를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화 속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공감이 오히려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반대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감정적 설득에 치중한 나머지 새로운 형태의 가족 전체를 돌봄이 필요한 소외 계층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평론가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들이 등장인물을 소외 계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심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를 감상할 때에는, 영화 속 새로운 가족 형태를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 대립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 형태는 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가족의 본질을 되새기게 해 주고,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많은 영화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모색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가족의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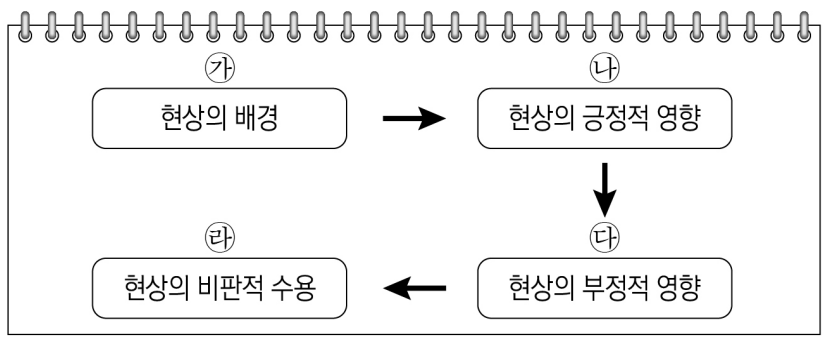
38. (가)와 (나)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화 참여자의 대화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이 다른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대화 참여자들이 함께한 경험에 대해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대화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의 발언 내용이 지닌 한계를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대화 참여자가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화제와 관련된 의견을 묻고 있다.

39. [A], [B]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답변하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한 후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발화를 일부 재진술한 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발언과 자신의 의견을 절충하여 새로운 의견을 다른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 모두 '학생 1'은, 예상되는 반응을 추측하며 '학생 2'와 '학생 3'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있다.

40. 다음은 (다)를 쓸 때 계획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의 담화 내용이 ㉮~㉲를 고려하여 (다)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의 발언이, ㉮를 고려하여 (다)에서 영화 속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반영되었다.
② ㉡의 발언이, ㉯를 고려하여 (다)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③ ㉢에 담긴 입장이, ㉰를 고려하여 (다)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④ ㉣에서 언급된 장면이, ㉯를 고려하여 (다)에서 영화 속 소외된 인물들끼리 끈끈한 유대 관계를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⑤ ㉤의 발언이, ㉱를 고려하여 (다)에서 영화 속 새로운 가족 형태의 모색을 새로운 가족의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41. (다)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를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분석한다.
②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를 본 관람객의 반응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③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에 대해 평가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 비평의 근거로 제시한다.
④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가 앞으로 창작될 영화들에 미칠 영향을 인과 관계에 따라 제시한다.

42. 다음은 (다)의 4문단의 초고와 학생들의 의견이다. 초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고쳐 썼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초고

> 한편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를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많은 영화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모색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가족의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초고에 대한 의견

학생 2 :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비평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이유도 추가했으면 좋겠어.
학생 3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했으면 좋겠어.

①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②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를 올바르게 감상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하였다.
③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해, 영화 속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통적 가족 제도와 관련하여 구체화하였다.
④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가족 형태를 다룬 영화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⑤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접속어로 교체하였다.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교내 보건 소식지에 이어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리는 글을 실으려 함.

[초고]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어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어폰을 잘못 사용한다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이어폰은 소리를 주변으로 퍼지게 하여 귀에 도달시키는 스피커와 달리, 고막 바로 앞에서 소리를 전달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어폰의 음량을 크게 하여 장시간 사용하면 달팽이관의 청각 세포가 손상되는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주변 소음보다 큰 음량으로 이어폰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소리를 명확하게 듣기 위한 음량 조건을 선호 청취 음량이라고 하는데,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선호 청취 음량이 커지게 되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청력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장시간 동안 큰 음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귀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어폰을 자주 착용하거나 이어폰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이르는 통로인 외이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거나 샤워 등을 한 직후 바로 이어폰을 착용하면 귀 내부가 고온다습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또한 청결하지 않은 이어폰도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면 가려움증과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이어폰을 끼고 길을 걸으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행 중에 이어폰을 사용하면, 자동차 경적 소리, 엔진 소리, 주변의 경고와 같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듣지 못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행 중에는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더라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음량을 조절하거나 한쪽만 착용하는 등 안전하게 이어폰을 사용해야 한다.

[A]

43.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이어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② 이어폰의 잘못된 사용으로 염증이 생겼을 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③ 이어폰과 스피커를 대조하여 이어폰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④ 이어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야겠어.
⑤ 길을 걸을 때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데 청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겠어.

44.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할 때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마지막 문단에서는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어폰의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요약하여 제시한 후,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 실천을 강조해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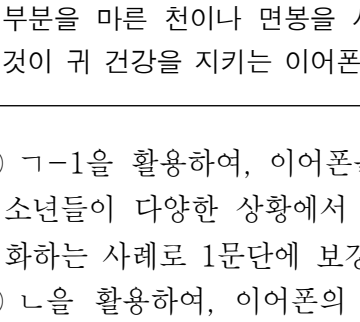
① 한번 손상된 청력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귀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② 이어폰의 잘못된 사용은 귀 건강을 잃게 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폰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이어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면 난청과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어폰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이어폰을 잘못 사용하면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건강검진 시 정밀한 청력 검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음량과 시간을 정해 사용하고 보행 중에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며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ㄱ. 조사 자료

ㄱ-1. 설문 조사



ㄱ-2. 장소별 소음도 비교표

장소	소음도(dB)
철도 승강장	90~100
대중교통 내부	70~90
도로변	60~70
교실	40~60
도서관	30~40

ㄴ. 신문 기사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힌 사고 중 이어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가 전체 사고의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어폰의 주변 소음 차단 기능이 보행 중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변 소음 차단 기능이 주변 상황의 인지를 방해하는 정도에 대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자들은 해당 기능을 껐을 때 엔진 소리가 큰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약 4.6m 뒤에서 알아차렸지만, 해당 기능을 켰을 때는 약 0.8m 뒤에서야 알아차렸다고 한다.

ㄷ. 전문가 인터뷰

"85dB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난청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이어폰의 경우 최대 음량이 90~100dB 정도이기 때문에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최대 음량의 60% 이하, 하루 60분 이하로 사용하는 '60·60 법칙'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어폰의 귀에 닿는 부분을 마른 천이나 면봉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 관리하는 것이 귀 건강을 지키는 이어폰 사용 방법입니다."

① ㄱ-1을 활용하여, 이어폰을 사용하는 여러 상황을, 최근 청소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어폰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1문단에 보강한다.
② ㄴ을 활용하여, 이어폰의 특정 기능이 주변 상황의 인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행 중 이어폰 사용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
③ ㄷ을 활용하여, 귀 건강을 위해 이어폰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이어폰으로 인한 외이도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3문단에 보강한다.
④ ㄱ-1과 ㄴ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이어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보행 중 이어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
⑤ ㄱ-2와 ㄷ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난청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시끄러운 환경에서 선호 청취 음량이 높아지는 이유로 2문단에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